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2)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②

或者遊帝曰予之孤陋也
혹자피석왕여지고루야
幸子發其蒙 願聖人之學
행자 발기몽 원문성인지학
中庸子曰 復坐 吾語汝
중용자왈 부좌 오어여
曾云乎 惟狂 惛念作或 惟聖 罔念作狂
승불운호 유광 극념작성 유성 망념작성
是故 聖人 造次隨市 未嘗不念正道而
은고 성인 조차전제 미상불념정도이
학지야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르기를, 「나의 고루함이며(견문이 좁고 시대에 뒤짐),

다행히 (나의) 그 동맹함을 계발해주시니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중용자(고산지원법사) 이르기를 「자리에 앉으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이하 그의 발언)

서경에서 이르지 않거나, 오히려 마치 공이라도 생각을 이기면(한생각 돌려 삼독심 여의면) 성인이 되고 성인일지라도 생각 바르지 못하면 마치공이가 된다 하지 않거나.

그러므로 성인은 아차 한순간 받을 헛디더 물을 잊지를 때(신심을 잃음·주장자를 잃음)에도 잊지기 정도를 잊

배워서 알면 보통사람 알고도 배우면 성인

지 않아 배움이 없지않나니라.

夫子 大聖人也 披乎其萃 出乎其類
부자 대성인야 발호기취 출호기류
自生民以來 未有如夫子者
자생민이래 미유어부자자

入太廟 每事問 則學於廟人也
입태묘 매사문즉시 학어묘인야
三人行 擇其善者而從之 則學於善者也
삼인행 택기선자이종지즉시 학어혜행야
入周則問禮於老子則學 學於柱史耶
입주즉문예어노자즉시 학어주사야
堯仲尼至聖 不若廟人行人柱史耶
기중니지성 불약묘인행인주사야

공자는 큰 성인이라, 그 무리 가운데 빼어났으며 그 무리에서 특출하니 사람이 난 이래로 공부자 같은 이가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나라 주공의 묘(또는 종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었으니 이는 묘지기에게 배운 것이요

세사람이 길을 갈 때는 그중 착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좇았으니 이는 동행하는 이에게 배운 것이요.

주나라에 들어가서는 예법을 노자에게 물었으니 이는 주하사(중국비술이름·도서관 서기)에게 배운 것이라.

어찌 공자의 성인다운이 묘지기나 행인, 도서관 서기만 못하리마는

蓋聖人 權夫不念正道而學之於任也矣
龍眼

개성인 구부불념정도이학지어판야의
故曰必有如丘之志焉 不如丘之好學也
고 알필유어구지중산인 불어구지호학야
曰聖人 生而知之 何必學焉
알성인 생이지지 하필학위
曰知而學 聖人也 學而知 常人也
알지이학 성인야 학이지 상인야
雖聖人常人 莫不由於學焉
수성인상인 막유불유어학인

대체로 성인은 바른 도를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마치공이 같이 될까 두려워 함이라

고로 이르기를 공자와 같은 충신은 꼭 있었으며 공자와 같이 배움을 좋아하는 이는 없었노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이) 이르기를, 「성인은 (닥지 않아도) 나서부터 안다하는데 어찌 반드시 배운다 합니까, 하였습니다

(내가) 답하기를 「알고 배우는 이는 성인이고 배워서 아는 것은 보통사람인데

비록 성인이든 보통사람이든 배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하였습니다.

孔子曰君子不可不學 子路曰南山有竹
공자왈군자불가불학 자로왈남산유죽
不柔自直 而用之 達乎犀革
불유자직 참이용지 달호서혁
以此言之 何學之有

이차언지 하학지유
孔子曰 括而羽之 鏃而鏃之
공자왈 괄이우지 촉이러지
其入之不亦深乎
기입지불역심호

공자 이르기를 「군자는 가히 배우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자로가 말하기를 「남산에 대나무가 있어 바로 잡지 않아도 질로 곧아 베어서 쓰면 무소의 가죽을 뚫는다 하였으니 이로써 말하건대 어찌 배울 것이 있습니까?」

공자 이르기를 「화살 끝에 깃을 달고 촉을 잡아 박으면 그 뚫고 들어감이 깊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子路 再拜曰 敬受教矣
자로 재배왈 경수교의
願聖人之學 無乃括羽鏃鏃 使深入乎
원성인지학 무내괄우촉러 사심입호
豈生而知之者 兀然不學耶
기생이지지자 울연불학야

자로가 재배하면서 「공경히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속도다. 성인의 배움이란 깃을 달고 촉을 잡아 깊이 뚫고 들어가게 함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어찌 나면서부터 안다고 잘난척(우뚱한척) 배우지 않는 것인가

금정산정(金井山頂) 비암룡(飛岩龍)하고
해운심저(海雲深底) 생연화(生蓮花)로
다.
금정산 산정에 바위용이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해운대 바다밑 깊은 곳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곱게 곱게 피어 있더라.

우리의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가 허상입니다. 이 허상이 바로 허깨비입니다. 허깨비이기 때문에 거품같고 안개같고 구름같고 연기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일장춘몽입니다. 즉 거북이의 털, 토끼의 뽕입니다.

여기에는 두 말이 필요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현실을 벗어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산승이 하는 말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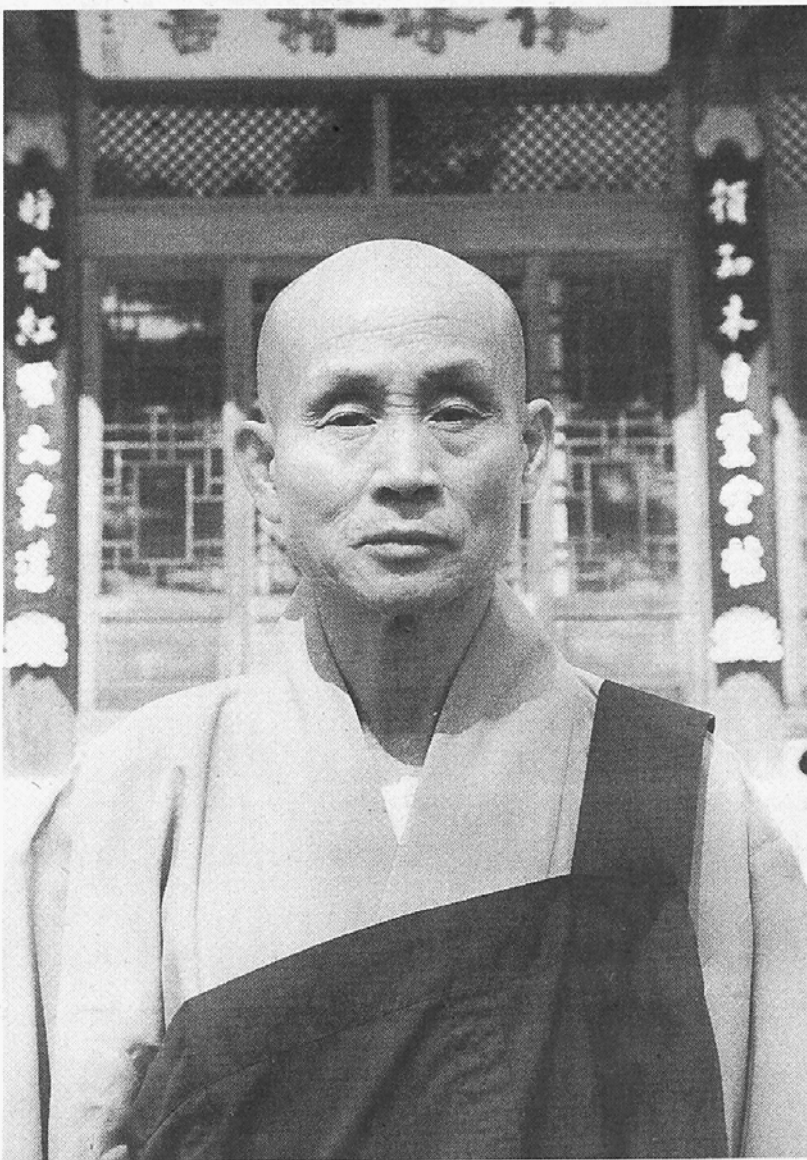
중생의 근본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원력과 지혜와 자비가 삼위일체 되어야

거짓입니다. 그러나 거짓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법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말과 뜻과 생각이 아닙니다.

도를 이룸으로 법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써는 절대로 깨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는 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다, 선이다, 도다, 하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뜻으로 헤아려서 알려 한다면 이것은 헤아리는 것이지 결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거나 일으키게 되면 생각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필지언정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도와 선과 법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삼위일체입니다. 이 도와 선과 법이 서로 상응하여 도를 이루고, 도를 이룸으로 해서 안목이 열리므로 확철대오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침을 위하는 것



대정스님
법어사 선원장

- 1931. 3. 25 대구 생
1946년 출가
1969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 법어사 등 선원에서 수행정진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법어사 휴휴정사에서 수행정진

와 넓이와 그 모양이 비슷한 가설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일체만물을 보지만 제눈을 제거 볼 수 없는 것처럼 깨침이라는 것은 깨침 자체에 가서는 깨침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을 때 밝음이 있는 것이지 일단 밝고 나면 어둠이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확철대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깨침도 없고 깨침 자체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깨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선, 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하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높이와 크기

와 넓이와 그 모양이 비슷한 가설이 필요 합니다.
이 가설은 본 건물을 짓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 되면 가설은 자연히 소멸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도와 선과 법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깨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부처님의 깨침입니다. 그래서 깨치면 바로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부처(是心即佛)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재 우

리가 앓고, 높고, 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는 것 즉 행위와 어묵중심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깨침이고 부처고 되고 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 하지 만약 내가 없으면 동시에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시작하는 마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법공양문